



#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김정일대원수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 열차안에서 일군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제100(2011)년 8월  
← 금강산 비로봉의 장쾌한 해돋이를 부감하시며 선군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락관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완공단계에 들어선 금야강군민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제99(2010)년 8월



새로 건설된 축구경기장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제99(2010)년 6월



창성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제99(2010)년 11월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제 100(2011)년 1월



대흥청년영웅광산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제100(2011)년 10월



강계편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제98(2009)년 12월



현대적으로 꾸려진 평양남새과학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제 100(2011)년 3월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시려고 마음쓰고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제100(2011)년 11월



새로 건설된 보통문거리고기상점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제100(2011)년 9월





# 남 조 선 인 권 유 린 조 사 통 보

## 남 조 선 인 권 유 린 조 사 통 보

지금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 지배와 피괴당의 파쇼통치, 반인민적약정으로 근로대중의 정치적자유와 권리가 무참히 유린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돈에 의해 좌우되는 인권 폐허지대, 썩어빠진 인간생지옥으로 악명을 떨치고있다.

2014년 한해만도 남조선에서는 끔찍한 인권유린대참사들이 연이어 빚어져 세상사람들을 경악케 하였으며 온 민족과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 2014년 남조선 인권 유린실태에 관한 보고서

#### 1. 「국권」 없는 식민지의 「인권」 실상

인권은 곧 국권이요 자주권이다. 국권을 빼앗긴 식민지에서는 인권이란 애당초 생각조차 할수 없다. 미국의 식민지 남조선에서는 올해에도 미군의 만민적폭력, 반인민적범죄행위들이 거러걸없이 감행되었다. 지난 5월 31일 경기도 통인시에서는 3명의 남조선장검 미제침략군들이 대낮에 술을 마시고 남조선 여성을 희롱하였는가 하면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과 지어 경찰까지 마구 폭행하며 돌아치는 당혹을 부러였다.

같은 날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서도 미제침략군 2사단소속 병장들이 택시운전사가 편의점에 들어간 틈을 리용하여 택시를 훔쳐가지고 뺏소니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9월에는 경기도 의정부시와 포천시에서 미제침략군들이 택시운전사를 마구 폭행하여 심한 부상을 입힌 사건, 길가면 20여 여성에게 인근거리며 판통을 부린 사건, 여성의 목을 조르고 성추행하는 치벌리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경악을 자아냈다.

피괴정치방장경찰청이 조사를 자료에 의하면 미제침략군보다 많은 경기도지역에서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마약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미군범죄자수는 48명이었고 2010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총 407명이 달하였다.

그러나 미군범죄자들에 대한 재판은 단 한건도 제대로 진행된적이 없다.

뿐만아니라 경기도주민들은 하루도 그칠새 없는 미제침략군들의 광란적인 전횡연속소송으로 생명권과 생존권을 엄중히 위협당하였다.

1월 15일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영령리에서 남조선장검 21사단소속 무장조종사가 훈련이라미는 명칭에 저공비행으로 마을상공에 날아들어와 미민들이 몰려서 주민들의 살림집과 온실 등의 지역물을 파손시키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3월 29일 오산미공군기지에서는 미해병대소 전투기가 저공비행을 하면서 기지박에 있는 주민공공용 전선줄을 무참 끊어놓아 주민대중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11월 21일 경기도 포천시에서 미군훈련장에서는 미제침략군 2기중항공편단소속 공격용순직기가 공중사격훈련을 하면서 쏜 기총탄이 훈련장에서 1km가량 떨어진 민간사촌 마을에 날아들며 대형인명피해를 발생시킬수 있는 위험천만한 사태를 빚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의정부시 시장안병은은 《주한미군범죄가 란무하여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있는데 확실한 제반방대책이 없다. 미군주둔 이후 60년 넘게 살고살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당하고 있어야 하는가. 조국과 자기의 직살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남조선장검 미제침략군기지에서는 노예로동을 강요당하고있는 남조선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더 비참하다.

지난 4월 10일 《국회》외교특별위원회소속 개정지민주원합 의원 홍이표는 《KBS》방송과의 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주한미군기지서 일하는 한국인근로자들의 실태는 대단히 열악하다. 지난 3년동안 임금받지 못한 경우가 심지어 구내식당도 없이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고용안정제도 불안하여 미군관계자가 오를 한미교 하면 그 다음날로 한국인로동자는 해고되는 형편이다.》

지난 8월 경기도 동두천시의 미군기지서 발생한 남조선노동자의 자살사건은 그 실상을 보여주었다.

미군기지 식당에서 20여년동안 집시를 닦으며 생계를 유지해오던 이로동자는 미군측이 뒤통 안되는 로입다며 자살하자 《생활교도》를 들었다. 《생활교도》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을 매고 자살하였는데 그 누구도 관심조차 두지 않아 시체가 한주일도 넘도록 내버려져있었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의 자료에 의하면 올해 미군유지비용에 반영된 남조선노동자들의 인건비는 37.3%로서 지난 20여년동안 유지되었던 40%에서 대폭 떨어졌지만 군사시설건설비는 44.7%로 2007년에 비해 38%나 늘었다.

로군은 피괴군보다 19.3%나 높으며 결과 지난 5년동안 미군은 4 000여만USS이상의 《전기로금합인혜택》을 받은것으로 드러났다.

1962년 7월 1일 미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체결된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는 50년이 지나도록 한글자도 수정되지 않아 미군은 전기로금연체료를 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받지 않는 특혜를 여전히 받고있다.

인권은 국권이고 국권의 핵심은 군사주권이다. 피괴당원은 지난 60여년간 군사주권을 통째로 빼앗겼고 모자라미국이 2015년까지 넘겨주겠다는 전시작전통제권마저 포기함으로써 남조선을 미국의 영구적인 침략전쟁기지로 내몰기였다.

이것이 얼마나 매국적외약인 하는것은 동두천시의 비참한 형편 하나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서울지부장 손치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국방부, 외교부 등 관련 부, 처들이 미국의 눈치만 보고있다. 그들과 우리 돈을 내고도 한국인로동자들의 생존권은 더욱 위협해지는 현상이 빚어지고있다. 우리는 노예와 다름아 없다.》

미군에 의한 반인민적, 반인권적범죄행위는 피괴당의 친미사대매국, 중중정책이 빚어낸것이다.

지난 11월 11일 피괴당은 올해 남조선장검 미제침략군유지비용으로 지난해(7억 6 940여만USS)보다 4 470만USS나 더 늘어난 8억 1 410여만USS를 써버리는 굴욕적인 미군유지비 분담금 특별협정(2014년~2018년)을 체결하였다.

또한 협상결과로 유지비가 앞으로 해마다 자동적으로 늘어나 2017년에는 그 액수가 8억 8 500여만USS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자금사용행치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법적근거도 없어 미국이 자금을 은행에 입금시켜 놓고 리자까지 받으면서 제 마음대로 사용해도 무방하게 되었다.

실제로 1월 23일 《동아일보》등 남조선언론들은 미국이 유지비용을 남조선장검 미군기지에 있는 은행에 입금시켜놓고 얻은 리드금이 2007년부터 지금까지 13억USS에 달한다 고 폭로하였으며 미국도 이 사실을 공식 인정하였다.

뿐만아니라 피괴당은 남조선경찰 미제침략군의 주둔지역내로, 시설부지 및 설비비, 세관비 등의 명목으로 년평균 20억USS에 달하는 간접지원비를 써버리고 각종 특혜조치를 취하고있는데 이것은 미군의 전자기사용료금도 보내고 일수 있다.

남조선잡지 《주간경향》(10월 28일호)에 의하면 남조선장검 미제침략군 헌당 전기사용량은 피괴군 헌당 사용량의 9배에 달하였지만

### 2. 민주주는 세계최악의 인권도대

오늘 남조선에서 인권실태는 피괴당의 중재기적폭압통치와 반인민적약정에 의해 참혹한 지경에 이르렀다.

아직까지 인권분야의 많은 국제조약과 협약들에 조인하지 않았고이는 피괴당은 21세기의 문명시대에 와 서까지도 수시대적인 파쇼악법들을 마구 내리두르며 인권유린당통을 부러고있다.

아명윤은 《보안법》의 이름으로 감행된 반인민적, 반인권적범죄행위를 보자.

올해 피괴들이 축소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한 아래의 통계자료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안법》위반혐의로 립건한 피괴군사 34명, 기소된 수 21명
-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청 장정이 직접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한 《헌복제시물》 삭제건수 6 015건
-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터넷상에서의 《헌복제시물》 삭제건수 20만 6 404건
-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안법》위반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수 434명
-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보안법》위반혐의로 경찰에 걸려진 수는 《한양교부》 375명, 《적단체구성가입》 147명, 《회합통시》 48명, 《잡입탈출》 19명, 《간첩행위》 13명
-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안법》수사와 관련한 경찰의 진화감찰건수 141건
- 생존권을 요구하는 인민들에 대한 파쇼살인마들의 야수적탄압만행은 또한 그자체에 대한 말살행위가 아닐수 없다.

2월 25일 파쇼당국은 서울에서 박근혜를 1년을 계기로 4만여명의 각계중 주민들이 시위투쟁에 떨쳐나 서자 경찰 185계 중대 1만 5 000여명과 수비대의 뺨스를 동원하여 집결이 에워싸고 시위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최루탄을 발사하며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당시 시위진압에 최루탄을 발사한 것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최근 몇년 동안 처음이라고 한다.

### 3. 동족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반인권적 만행

지금 피괴당은 온 남조선을 인권법모지, 인권폐허지대로 만들고도 모자라 우리 공화국주민들을 대상으로 유인람치, 인신매매, 고문, 《귀순》강요 등 극악무도한 인권유린만행을 거러걸없이 감행하고있다.

피괴당은 정보인, 통일부, 외교부, 《북리탈주인보호센터》, 《북리탈주인지원센터》, 《민중공동체 해외협력팀》과 같은 모략기구들을 내오고 우리 공화국주민들에 대한 유인람치에 광분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인권발북청년연합》, 《북한전략센터》 등 민간의 말을 온 모략단체들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있는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피괴국무총리실의 지원비만도 20만 USS에 달하였다.

이에 대해 한 여성은 자기가 겪은 인권유린행위를 이렇게 고발하였다. 《30대 초반의 정보인 요원으로 보이는자가 10여명의 여성들에게 겁을 한다면 무조건 속옷까지 훌럭 벗으라고 지시하였다. 주저하는 여성들에게 대해서는 막대기로 가슴과 음부를 쿡쿡 찌르면서 《너같은 쓰레기에게도 정조가 있는가.》고 야유하다가 호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들고 《스스로 벗기를 꺼려하는 녀들은 내가 도와주지.》라고 썰면이면 서 속옷을 찢으려고 덤벼들었다.

내가 임신했는데 제발 사정을 봐달라고 간청하자 《제집인데 시내 새끼지 든든한 애를 낳게 해주지.》라고 정교하게 웃으면서 옆에 있던 자를 들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300번이나 시켰다.

하혈을 해서 무릎까지 적셨지만 병원에는커녕 비가 풀줄 내리는 운동장에 내몰아 벌칙으로 달리기를 시켰다.

젖먹던 기운까지 내서 발자국을 때려고 하였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말았다. 결국 류산하게 되었다.》 남조선언론들은 《정보로금급제도, 비상계엄명하의 체포, 위급에 대한 특별조치도 이렇게까지 참혹할수는 없다.》, 《모욕적인사와 강압적 심문을 받던중 폭행에 의해 멍장이 터져도 수술을 받지 못했다.》, 《병원의 판파나모해금지감옥보다 더 잔혹하다.》고 폭로하였다.

남조선에 끌려간 사람들은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고있다. 60%이상 직접도 일하며 때려다지고 겨우 일자리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들도 일고되고 위험한 일종들에서 일하고있으며 그들이 받는 협한 곳에서 일하면서도 항시적인 해고불안상태에 있으며 취업안과 생활안으로 해산을 포기한 여성은 54%에 달하여 출신들이 세계 최하를 기록하고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만 240건으로서 지난해에 비해 36% 늘어나고 리혼 등으로 버려지는 어린이수는 1만 6 000여명에 달하였다.

지난해 로인학대건수는 2009년에 비해 32% 늘어난 3 520건이었고 사와와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았고길거리로 방황하며 벌이먹거나 쓰레기를 뒤집어 쓴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로인수는 현재 175만명에 달한다.

지난해만 보아도 각종 흉악범죄건수는 총 200만 6 682건, 하루평균 5 497건으로서 언론들이 《범죄의 홍수속에 살아가고있다.》고 개탄할 정도이다.

여기에 《세월》호대참사, 경상북도 경주체육관건물지붕붕괴사고, 서울차철도전동차 충돌사고, 전라남도 장성군 로양병원화재사고, 경기도 구남시 야외공연장에서의 붕괴사고 등 대형참사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고용노동부 등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각종 사고건수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경중사고만 해도 5만 6 046건에서 5만 8 000건으로 늘었다.

올해 피괴내에서의 인권유린만행은 최악을 기록하였다.

지난 4월 피괴군 28사단 포병연대에서 발생한 집단자살인민행은 단편적인 실례에 불과하다. 피괴군에서의 《문지마》식폭행, 잠 못 이루고 《기차자세》로 서있고, 개공내를 내면서 바닥에 벌아놓은 가래침이나 번기바닥 깔아먹고, 도한물, 《도로로복》위해, 공무집행 방해 등에 걸이 간담에 가두어넣고 압수수색행장도 없이 개인소지품을 강제로 빼앗는가 하면 지어 너대 학생들의 속옷마저 벗겨내고 성적도 유세를 주는 고문만행을 무로 40시간 동안이나 거러걸없이 감행하였다.

뿐만아니라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반인람치만행을 저지른자들을 처벌할 대신 집회에서 많은 인원을 걸거친 경찰을 《표창》하는 놀음까지 벌였다.

5월 26일에는 대학생들이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대참사와 관련한 기술시위를 벌였다고 하여 진압결과 방패 지어 자동차까지 휴대한 폭압부

대에 대해 한 여성은 자기가 겪은 인권유린행위를 이렇게 고발하였다. 《30대 초반의 정보인 요원으로 보이는자가 10여명의 여성들에게 겁을 한다면 무조건 속옷까지 훌럭 벗으라고 지시하였다. 주저하는 여성들에게 대해서는 막대기로 가슴과 음부를 쿡쿡 찌르면서 《너같은 쓰레기에게도 정조가 있는가.》고 야유하다가 호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들고 《스스로 벗기를 꺼려하는 녀들은 내가 도와주지.》라고 썰면이면 서 속옷을 찢으려고 덤벼들었다.

내가 임신했는데 제발 사정을 봐달라고 간청하자 《제집인데 시내 새끼지 든든한 애를 낳게 해주지.》라고 정교하게 웃으면서 옆에 있던 자를 들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300번이나 시켰다.

하혈을 해서 무릎까지 적셨지만 병원에는커녕 비가 풀줄 내리는 운동장에 내몰아 벌칙으로 달리기를 시켰다.

젖먹던 기운까지 내서 발자국을 때려고 하였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말았다. 결국 류산하게 되었다.》 남조선언론들은 《정보로금급제도, 비상계엄명하의 체포, 위급에 대한 특별조치도 이렇게까지 참혹할수는 없다.》, 《모욕적인사와 강압적 심문을 받던중 폭행에 의해 멍장이 터져도 수술을 받지 못했다.》, 《병원의 판파나모해금지감옥보다 더 잔혹하다.》고 폭로하였다.

남조선에 끌려간 사람들은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고있다. 60%이상 직접도 일하며 때려다지고 겨우 일자리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들도 일고되고 위험한 일종들에서 일하고있으며 그들이 받는 협한 곳에서 일하면서도 항시적인 해고불안상태에 있으며 취업안과 생활안으로 해산을 포기한 여성은 54%에 달하여 출신들이 세계 최하를 기록하고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만 240건으로서 지난해에 비해 36% 늘어나고 리혼 등으로 버려지는 어린이수는 1만 6 000여명에 달하였다.

지난해 로인학대건수는 2009년에 비해 32% 늘어난 3 520건이었고 사와와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았고길거리로 방황하며 벌이먹거나 쓰레기를 뒤집어 쓴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로인수는 현재 175만명에 달한다.

지난해만 보아도 각종 흉악범죄건수는 총 200만 6 682건, 하루평균 5 497건으로서 언론들이 《범죄의 홍수속에 살아가고있다.》고 개탄할 정도이다.

여기에 《세월》호대참사, 경상북도 경주체육관건물지붕붕괴사고, 서울차철도전동차 충돌사고, 전라남도 장성군 로양병원화재사고, 경기도 구남시 야외공연장에서의 붕괴사고 등 대형참사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고용노동부 등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각종 사고건수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경중사고만 해도 5만 6 046건에서 5만 8 000건으로 늘었다.

올해 피괴내에서의 인권유린만행은 최악을 기록하였다.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면서 더욱씩달락 못하게 엮어놓고있다. 그런가하면 강제립치해간 우리 주민들에게 《간첩》혐의를 들이쳐우연사를 한다면 무조건 속옷까지 훌럭 벗으라고 지시하였다. 주저하는 녀성들에게 대해서는 막대기로 가슴과 음부를 쿡쿡 찌르면서 《너같은 쓰레기에게도 정조가 있는가.》고 야유하다가 호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들고 《스스로 벗기를 꺼려하는 녀들은 내가 도와주지.》라고 썰면이면 서 속옷을 찢으려고 덤벼들었다.

내가 임신했는데 제발 사정을 봐달라고 간청하자 《제집인데 시내 새끼지 든든한 애를 낳게 해주지.》라고 정교하게 웃으면서 옆에 있던 자를 들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300번이나 시켰다.

하혈을 해서 무릎까지 적셨지만 병원에는커녕 비가 풀줄 내리는 운동장에 내몰아 벌칙으로 달리기를 시켰다.

젖먹던 기운까지 내서 발자국을 때려고 하였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말았다. 결국 류산하게 되었다.》 남조선언론들은 《정보로금급제도, 비상계엄명하의 체포, 위급에 대한 특별조치도 이렇게까지 참혹할수는 없다.》, 《모욕적인사와 강압적 심문을 받던중 폭행에 의해 멍장이 터져도 수술을 받지 못했다.》, 《병원의 판파나모해금지감옥보다 더 잔혹하다.》고 폭로하였다.

남조선에 끌려간 사람들은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고있다. 60%이상 직접도 일하며 때려다지고 겨우 일자리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들도 일고되고 위험한 일종들에서 일하고있으며 그들이 받는 협한 곳에서 일하면서도 항시적인 해고불안상태에 있으며 취업안과 생활안으로 해산을 포기한 여성은 54%에 달하여 출신들이 세계 최하를 기록하고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만 240건으로서 지난해에 비해 36% 늘어나고 리혼 등으로 버려지는 어린이수는 1만 6 000여명에 달하였다.

지난해 로인학대건수는 2009년에 비해 32% 늘어난 3 520건이었고 사와와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았고길거리로 방황하며 벌이먹거나 쓰레기를 뒤집어 쓴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로인수는 현재 175만명에 달한다.

지난해만 보아도 각종 흉악범죄건수는 총 200만 6 682건, 하루평균 5 497건으로서 언론들이 《범죄의 홍수속에 살아가고있다.》고 개탄할 정도이다.

여기에 《세월》호대참사, 경상북도 경주체육관건물지붕붕괴사고, 서울차철도전동차 충돌사고, 전라남도 장성군 로양병원화재사고, 경기도 구남시 야외공연장에서의 붕괴사고 등 대형참사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고용노동부 등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각종 사고건수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경중사고만 해도 5만 6 046건에서 5만 8 000건으로 늘었다.

올해 피괴내에서의 인권유린만행은 최악을 기록하였다.

지난 4월 피괴군 28사단 포병연대에서 발생한 집단자살인민행은 단편적인 실례에 불과하다. 피괴군에서의 《문지마》식폭행, 잠 못 이루고 《기차자세》로 서있고, 개공내를 내면서 바닥에 벌아놓은 가래침이나 번기바닥 깔아먹고, 도한물, 《도로로복》위해, 공무집행 방해 등에 걸이 간담에 가두어넣고 압수수색행장도 없이 개인소지품을 강제로 빼앗는가 하면 지어 너대 학생들의 속옷마저 벗겨내고 성적도 유세를 주는 고문만행을 무로 40시간 동안이나 거러걸없이 감행하였다.

뿐만아니라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반인람치만행을 저지른자들을 처벌할 대신 집회에서 많은 인원을 걸거친 경찰을 《표창》하는 놀음까지 벌였다.

5월 26일에는 대학생들이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대참사와 관련한 기술시위를 벌였다고 하여 진압결과 방패 지어 자동차까지 휴대한 폭압부에 대해 한 여성은 자기가 겪은 인권유린행위를 이렇게 고발하였다. 《30대 초반의 정보인 요원으로 보이는자가 10여명의 여성들에게 겁을 한다면 무조건 속옷까지 훌럭 벗으라고 지시하였다. 주저하는 여성들에게 대해서는 막대기로 가슴과 음부를 쿡쿡 찌르면서 《너같은 쓰레기에게도 정조가 있는가.》고 야유하다가 호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들고 《스스로 벗기를 꺼려하는 녀들은 내가 도와주지.》라고 썰면이면 서 속옷을 찢으려고 덤벼들었다.

내가 임신했는데 제발 사정을 봐달라고 간청하자 《제집인데 시내 새끼지 든든한 애를 낳게 해주지.》라고 정교하게 웃으면서 옆에 있던 자를 들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300번이나 시켰다.

하혈을 해서 무릎까지 적셨지만 병원에는커녕 비가 풀줄 내리는 운동장에 내몰아 벌칙으로 달리기를 시켰다.

젖먹던 기운까지 내서 발자국을 때려고 하였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말았다. 결국 류산하게 되었다.》 남조선언론들은 《정보로금급제도, 비상계엄명하의 체포, 위급에 대한 특별조치도 이렇게까지 참혹할수는 없다.》, 《모욕적인사와 강압적 심문을 받던중 폭행에 의해 멍장이 터져도 수술을 받지 못했다.》, 《병원의 판파나모해금지감옥보다 더 잔혹하다.》고 폭로하였다.

남조선에 끌려간 사람들은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고있다. 60%이상 직접도 일하며 때려다지고 겨우 일자리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들도 일고되고 위험한 일종들에서 일하고있으며 그들이 받는 협한 곳에서 일하면서도 항시적인 해고불안상태에 있으며 취업안과 생활안으로 해산을 포기한 여성은 54%에 달하여 출신들이 세계 최하를 기록하고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만 240건으로서 지난해에 비해 36% 늘어나고 리혼 등으로 버려지는 어린이수는 1만 6 000여명에 달하였다.

지난해 로인학대건수는 2009년에 비해 32% 늘어난 3 520건이었고 사와와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았고길거리로 방황하며 벌이먹거나 쓰레기를 뒤집어 쓴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로인수는 현재 175만명에 달한다.

지난해만 보아도 각종 흉악범죄건수는 총 200만 6 682건, 하루평균 5 497건으로서 언론들이 《범죄의 홍수속에 살아가고있다.》고 개탄할 정도이다.

여기에 《세월》호대참사, 경상북도 경주체육관건물지붕붕괴사고, 서울차철도전동차 충돌사고, 전라남도 장성군 로양병원화재사고, 경기도 구남시 야외공연장에서의 붕괴사고 등 대형참사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고용노동부 등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각종 사고건수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경중사고만 해도 5만 6 046건에서 5만 8 000건으로 늘었다.

올해 피괴내에서의 인권유린만행은 최악을 기록하였다.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면서 더욱씩달락 못하게 엮어놓고있다. 그런가하면 강제립치해간 우리 주민들에게 《간첩》혐의를 들이쳐우연사를 한다면 무조건 속옷까지 훌럭 벗으라고 지시하였다. 주저하는 녀성들에게 대해서는 막대기로 가슴과 음부를 쿡쿡 찌르면서 《너같은 쓰레기에게도 정조가 있는가.》고 야유하다가 호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들고 《스스로 벗기를 꺼려하는 녀들은 내가 도와주지.》라고 썰면이면 서 속옷을 찢으려고 덤벼들었다.

